

지역 소식통

소양면, 5개 기관 모여
위기가정 지원 협의

완주군 소양면이 위기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9일 소양면은 소양면 맞춤형복지팀, 완주경찰서, 완주군보건소,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완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통합사례회의에 상정된 대상자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오랜 병상생활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과 가족 간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구로, 회의 참석자들은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각 기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양면 맞춤형복지팀은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실 있는 맞춤형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민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올바른 범소독 방법' 홍보 적극 전개

완주군이 '올바른 범소독방법'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9일 완주군은 매년 종자전염병, 비인식종과 잘못된 종자소독에 따른 약해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올바른 범소독방법'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맞춰 군은 이달 말까지 전화, SNS, 다양한 홍보물 등을 활용해 범소독 등 올바른 종자소독법을 제공한다.

또한 비 보급종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디리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독해서 파종해야만 한다. 소독방법은 정부 보급종의 소독종자와 미소독 종자로 구분해서 소독하고, 정부보급종은 살충제 처리 후 소독하고 미소독 종자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용해 30℃의 따뜻한 물에 소독약과 함께 넣고 48시간 소독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코로나19 핀셋형 집중점검

완주군, 고위험군 업종... 유흥·단란주점 합동점검 추진
19일 까지... 2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지속

완주군이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추진하는 오는 19일까지 고위험군 업종에 대해 이른바 '핀셋형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끈다.

완주군은 9일 오전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정철우 부군수 주재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책과 해외입국자 관리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19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 부군수는 이날 회의석상에서 "타 지역에서 유흥업소 등의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지역도 고위험군 업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방역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북도와 경찰서 등과 함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인 합동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군 업종에 대해선 식약처와 전북도, 경찰서,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생 취약업소의 방역소독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핀셋형 집중점검'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과 관련해 고위험군 집중점검 대상에 단란주점을 추가하

고 업종별·시군별 특성에 맞는 점검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완주군은 유흥·단란주점 합동점검 5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과 관련한 합동점검을 해왔으며, 점검 실적만 누적횟수 기준 460여 개소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종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차원에서 이미 절반가량은 휴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완주군은 또 완주교육지원청과 지난 1일 일제 합동점검을 한 데 이어 오는 19일까지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합동점검에서 마스크 착용과 방역물품, 대장 비치 등 준수사항의 철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올해 32호 주택 공급... 7월 초 LH 홈페이지 청약센터 지원 예정
신청자격... 4월10일 기준 김제가 주민등록 주소지·무주택자

김제시는 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에 적합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임대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김제시에는 32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주민

등록이 등재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7월 초 LH홈페이지 청약센터를 통해 입주자를 발표, 개별통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0년 4월 10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가구원 전부가 무주택자인 가구로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등록 장애인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이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한도는 호당 6,000만원(다자녀 8,500만원)이며, 전세보증금의 2~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고, 지원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연 1~2%의 이자도 월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기타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계약 체결 등 관련 문의는 김제시청 건축과(063-540-3080), 전북지역본부 LH콜센터(1670-2596)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CCTV 설치장소 현장답사 교육 실시

김제시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관제요원에 대한 범범용 CCTV 설치장소 현장답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 교육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및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2개조로 나누어 관내 주요 CCTV 설치현장을 방문해 카메라 설치 위치에 대한 지리적 특성 등을 숙지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범죄대처 능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현장교육에 참여한 관제요원들은 "화면으로만 보던 장소에 직접 와



보니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이번 교육을 계기로 카메라와 도로의 연

계성 등을 숙지할 수 있어 관제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교육은 관제요원들이 정확한 지리정보 습득으로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긴급 대응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사이버학습센터 모바일 서비스

cyber.gimje.go.kr

* 별도의 앱(App)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인터넷 웹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바로가기



김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지역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시민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김제시 사이버학습센터'의 학습콘텐츠를 한층 보강했다.

방(房)구석 꼭! 사이버 학습

코로나19 극복 김제시 평생학습프로젝트... 10개분야 61개 동영상 강좌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지역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시민의 중단없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김제시 사이버학습센터'의 학습콘텐츠를 한층 보강하고 새롭게 온라인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온 가족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축된 김제시 사이버 학습센터는 시민들의 학습 욕구와 다양화하는 학습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는 10개 분야 61개 동영상 강좌로 리뉴얼하여 상시학습 시스템을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19로 지친 학습자를 위해 4월 학습이벤트인 '심심풀이 뇌섹남녀 퀴즈, 4월 신규강좌 중국어 트레이닝 따라하기 행운잔스' 등

알찬 학습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중단없는 사이버 학습지원을 위해 별도의 앱(APP) 설치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학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학습참여가 어려웠던 시민의 '배움의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 방법은 김제시 홈페이지(http://www.gimj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김제시 홈페이지 내 사이버학습센터 또는 김제시 사이버학습센터(http://cyber.gimje.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듣고 싶은 강좌를 수강하면 된다.

서원태인재양성과장은 "더불어 더 많은 시민들의 수강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사이버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청명·한식·윤달 기간 분묘 개장 사전신고

김제시는 4~6월, 청명·한식·윤달 기간 동안 분묘 개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무연 분묘의 유골 개장 처리에 대한 적극 홍보 및 건전한 매장 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청명, 한식, 윤달은 개장, 묘지 이장 등 묘지 일 하기 좋은 날로 여겨져 묘지 정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묘지 이장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없이 처리하여 불법행위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다수 발생하고 있다.

묘지 이장, 개장 등의 묘지 정비를 할 때에는 사전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장 전 기존 분묘의 사진과 함께 분묘의 현존지 읍면동사무소에 개장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번과 분

묘를 옮기고자 하는 장소, 현재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다른 장소로 옮겨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사실묘지에 매장해야 한다.

불법묘지에 매장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이장명령 등 행정처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제시는 정읍시 감곡면에 위치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장을 공동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만15세 이상 시신 7만원, 개장유골 3만원으로 사전 예약(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을 통해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